

# 민주 광주지역위원장 전원 단수 추천 '뒷말'

### 경쟁률 2.4대1 불구 경선 '전무'... 일부 탈락자 "면접 무시, 형식적 공모"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8개 지역 위원회 차기 위원장 명단이 사실상 결정된 가운데 일각에서 선경방식과 절차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10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광주지역 8개 지역위원회를 포함해 전국 105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 신청자들에게 대한 서류심사를 마쳤다.

조강특위는 앞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지역실사를 마쳤고 이를 결하여 지역위원장 최종후보자를 결정했다.

실사 결과 광주 동남갑은 최영호(54) 전 남구청장, 동남을은 이병훈(62) 전 동남을위원장, 서구을은 양향자(52·여) 최고위원 겸 전국여성위원장, 북구갑은 강기정(54) 전 북갑위원장, 광산갑은 이용빈(54) 전 광산갑위원장, 광산을은 민형배(58) 전 광산구정장으로 결정됐다.

조강특위는 앞서 지난 4일,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 단수로 신청한

서구갑에는 송갑석(52) 의원을 단수 후보로 확정하고, 북구을은 이형석(57) 광주시당위원장을 단수 추천했다.

8개 지역위원회 모두 단수 추천되면서 당초 예상됐던 일부지역의 경선은 무산됐다.

지역위원장 후보자 온라인 공모 결과 광주에서는 19명이 신청해 2.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동남갑은 5대 1, 광산을은 4대 1 구도여서 일부 경선이 예측되기도 했다.

지역위원장 임기는 2020년 총선까지다 이 때문에 이번 공모는 2년 뒤 21대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지난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했던 일부 출마자들에게는 낙선 후 정치적 재기의 발판의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낙선자들이 몰려 있는 지역구에서는 경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결국 모든 지역구가 단수 추천으로 교통정리됐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의아스럽다"는 반응과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후보자는 "A지역구의 경우 많은 이들이 경선을 예상했는데 심겁게 단수 추천되다 보니 과연 민주당이 변화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이 적잖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새롭고 신선한 인물도 없고, 도전적인 신인정자도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면접 심사가 생략된 데 대한 의구심도 적잖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서류와 지역실사를 토대로 선별적이지는 않겠지"며 "면접심사가 당연히 이뤄질 것으로 봤는데 전원 단수 추천이냐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지 실사보고서와 조강특위 공식보고서 내용이 뒤바뀌면서 경선 필요지역이 경선 불필요 지역, 즉 단수 추천지역으로 둔갑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일정은 합의, 원 구성은 다시 논의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원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끝내고 나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관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광주시의회 임시의장 권한 '도마'... 교체 놓고 갑론을박

제8대 광주시의회가 이를 연속 개회와 동시에 정회에 들어가는 파행을 겪으면서 임시의장의 권한이 논란의 한 중심에 섰다.

임시의장의 정회권한과 임시의장 교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규정을 놓고 "권한 밖"이라는 의견과 "합법적"이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회의진행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치열하다.

광주시의회는 10일 오전 10시 제8대 의회 첫 임시회인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소집한 뒤 전반기 의장, 부의장 2명 등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었으나 불과 10분 만에 정회했다. 2분만에 정회된 전날에 이어 이틀째 파행이다.

최다선 최연장자 자격으로 전날에 이어 또 다시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반재신(56·북구1·재선) 의원은 단상에 올라 임시회 회기 결정안만 통과시킨 뒤 일부 의원의 정회 요청과 동의가 이어지자 곧바로 정회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임시의장 권한 문제가 불거졌다.

소위 '주류측' 조석호(북구4) 의원은 지방자치법 54조를 들어 임시의장 교체를 요구했다. 반 임시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만큼 다음 순위 의원에 임시의장직을 넘기라는 취지다.

이에 반대 측 황현택(서구4) 의원은 의사진행 발안을 통해 '8대 원구성과 관련해 전체적인 내용 합의가 잘 안되고 있다. 의장 선거부터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한다'고 밝혔고, 동의 절차를 거쳐 곧바로 정회가 선언됐다.

논란이 된 '지방자치법 54조' 규정은 이렇다.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을 경우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반 임시의장이 이를 연속 정회를 선언해 의장 선거를 제때 실시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게 주류측 주장이다. 당초 3명이 출마했다가 2명이 사퇴하면서 단독후보로 입후보한 만큼 의장 선거를 지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제8대 광주시의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간의 주류 다름과 노론자위 감투 배분 등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이틀째 개점휴업 상태다. 본회의장 대형 전광판에 '정회'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임시의장은 의장 선출을 위한 '원포인트 의장'이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은 새 의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회를 주도한 비주류 측

어서 정무적 반란도 쉽지 않다. 실제 광주시의회에서는 2006년 7월 임시의장의 정회선언에 반발, 반대파 의원 10명이 밤늦게 의장 선거를 강행, 강박원 의원을 5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가 법적

## 지방자치법 54조 임시의장 교체, 정회권한 해석차 "의장 선거만 진행" vs "원구성 전체 先 교통정리" 시의회, 변호인단에 유권해석 의뢰기로 결과 관심

은 "원 구성은 의장만 선출해선 안된다.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한 교통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이 정회를 요구하면서 "8대 원구성과 관련해 전체적 내용에 합의가 잘 안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54조 규정에 임시의장 직무로 '의장 선거'만 '이 아닌' '의장 등의 선거'로 명시돼 있는 점도 법적 모호성을 키우고 있다.

결국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건건이 처리할 지, 패키지로 선(先) 합의한 뒤 투표를 진행할 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 셈이다. 본질적으로는 주류측이 의장을 차지하는 대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절반을 양보하라는 비주류측 요구가 충돌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주류 측은 정회 중에 새 임시의장을 뽑아 의장을 선출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이는 불법이

소송에 휘말려 두 달만에 법원 권고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

최근의 법원판례도 위법해 방점을 찍고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 해 4월 임시의장이 정회를 선포한 상태에서 일부 의원들이 임시의장을 새로 뽑아 의장을 선출한 것을 두고 "지방자치법과 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의장 선출은 물론 이어진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도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여당 의원들간 주류 갈등에 의회 사무처는 난감한 입장이다. 임시의장 교체, 정회 권한 인정 등을 두고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난감하다는 판단이다.

고심 끝에 시의회 사무처는 급히 자문변호인단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여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의회가 극적으로 정상화될지, 파행이 장기화될지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신봉우 기자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Together 광산구**